

#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부모가 함께한다

### 도교육청, 학부모 워크숍 개최... 다양한 학부모교육 제안

도내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 도교육청은 2018 학부모회 워크숍 '우학행: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내 14개 시군 초·중·고교 학부모 150여명을 비롯해 학부모 동아리 회원 30여명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2018년 학부모 교육 우수사례 공유 ▲2019년 학부모 교육 지원사업 설명 ▲학부모교육 활동 홍보영상 상영 ▲지역별 학부모 의견 나눔 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핵심은 모둠별로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활동성과를 나누고 2019년도 학부모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것. 학부모들은 1시간여 가량의 토론 시간을 갖고 학부모교육을 바라보는 관리지의 마인드 변화, 학부모회 회계처리 교육,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실질적인 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유희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이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사·학교를 신뢰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이 지난 7일 2018 학부모회 워크숍 '우학행: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 완산여고서 진로개척 '토크 콘서트' 열려

### 특성화고·중소기업 만남의장

특성화고 학생들과 중소기업이 만나는 '토크 콘서트'가 7일 전주 완산여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및 취업 의향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이날 2019년 신입생 학부모, 산학취업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는 박소라 개그우먼의 사회로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작 상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크쇼 등으로 진행됐다.

장연상 완산여고 연구부장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같은 기회가 큰 도움이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특히 이번 행사를 마련해 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부가 6일 진수당 비오로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해 권리 찾을 것"

### 전북대 산학협력단 노조 출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부가 6일 진수당 비오로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합원 50명을 비

롯한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위원장, 국공립대본부 임효진 본부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철로 단장 등이 참석해 노조 출범을 축하했다.

주성희 전북대 산학협력단지부장은 "전북대학교의 한 주체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강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산학협력단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며 초대 지부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 노조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조에 이어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두 번째로 출범했다. /장은성 기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단위 워크숍 개최

### 도교육청, 학생참여 중심 수업 맞춤형 학교단위 교육과정 설계 예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학교단위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에 따른 전라북도 중등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학교 구성원 간 공동사고를 통해 함께 만드는 학생선택 중심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의 성장-배움-행복의 질적 제고를 위

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1기 워크숍과 이번 2기 워크숍에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주제로 진행하며 학교별 5~8명이 한 팀을 구성해 총 38학교 약 205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천 신현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 특강, '컨설팅트와 함께 하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 수립 방안 토의', '학교별 교육

과정 다양화 방안 토의', 정현영(오송중)·장은희(군산여고)의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성장사례' 특강이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학생참여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접학교 간 핵심 교원의 열린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수립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남해경 교수 문화유산보호 공적 대통령상 수상

### 문화재 보호·교육 앞장 한옥 전파·발전 공헌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공대 건축공학과)가 지난 6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2018 문화유산보



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학술 연구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 교수는 그동안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보호에 힘써 왔고, 지역 문화재 위원으로 각종 향토 유적의 발굴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문화재 교육사업인 '정읍 김명관 고택과 고창 신재효 고택 생생문화재사업'을 유치해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이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표창을 받는다. 또한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건축문화재에서 나오는 폐부재를 수집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특히 남 교수는 지역뿐 아니라 국내 한옥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중심지로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 기능인력양성사업 등의 상시교육과 청소년한옥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옥캠프 등 각종 한옥교육을 실시하고 한옥전시와 한옥을 통한 기술개발에 공헌했다.

남해경 교수는 "앞으로도 건축문화재의 보호와 우리 고장의 한옥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옥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아이디어 해커톤 대회'에서 전주대 창업지원단 소속 Sunder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 전주대, '스마트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대상 수상

### 도시개발 문제 해결 위해 폐쇄형 창고 O2O 플랫폼 선보여

전주대는 '스마트아이디어 해커톤 대회'에서 창업지원단 소속 Sunder팀(대표:김병철 학생/전기전자공학과 4학년)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주대,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의 창업팀 13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 주제는 '전북지역 도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ICT 융복합 솔루션'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전주대 Sunder팀은 '폐쇄형 창고를 활용한 O2O 플랫폼'을 선보이며 대상을 수상했다. 온라인(online)

과 오프라인(offline)을 결합하여 기존 낙후된 시설을 재창조하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주경아 단장은 "본교 학생들이 대학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단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밀착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창업공모전 뿐만 아니라 중·고교 창업교육, 창업인재 전형 선발, 대학생 창업 강좌,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캠프 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창업자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